

제 1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

성 명 (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보기>에 해당하는 말하기의 유형은?

<보기>

하늬바람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하니! 저는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홍두께 선생님의 지도 아래 육상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하다 먹는 삶은 달걀을 무척 좋아하고 된장찌개를 잘 끓이는, 건강한 열네 살 소녀입니다.

- ① 소개하기 ② 충고하기 ③ 토론하기 ④ 협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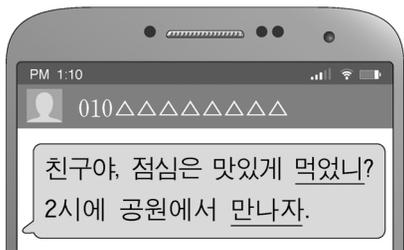
2.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단어는?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① 국물 ② 신라 ③ 눈동자 ④ 해돋이

3.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름을 나타내는 말
②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③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④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4. 밑줄 친 부분이 관용어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작년부터 오락실에 발을 끊었다.
② 동생은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③ 할아버지의 글 읽는 모습이 눈에 밟혔다.
④ 그녀는 네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5.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 것은?

- ① 꽃이 매우 예쁘다.
②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③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④ 학생들은 선생님을 좋아한다.

6.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은?

과거에 ‘즈믄’이라는 말은 ‘천(千)’을 뜻하는 고유어였다. 그러나 ‘천(千)’이라는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점차 덜 쓰이게 되고, 현재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된다.

- ① 언어의 규칙성 ② 언어의 불변성
③ 언어의 역사성 ④ 언어의 창조성

7. 다음에서 건의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OO구청 소리함
안녕하세요? 저는 OO중학교에 다니는 OOO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학교 앞에서 등갯길에 차와 부딪힐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구청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학교 근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정문 앞 인도가 매우 좁은데 차들이 인도까지 올라와 있으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위험한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봉과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친구 학교 앞이 가 보니 예쁜 안전봉과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구청장님,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① 학교 앞 유흥업소 철거
② 학교 앞 교통사고 피해 보상
③ 학교 앞 교통안전 문제 해결
④ 학교 앞 공사장 소음 문제 해결

8. 다음은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표이다. ㉠~㉣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Table with 2 columns: Section (제목, 처음, 중간, 끝) and Content (대중문화를 이끌 팬클럽 문화, 팬클럽 문화의 정의, 팬클럽 문화의 긍정적인 모습, 팬클럽 문화의 부정적인 모습, 팬클럽 문화의 역할과 나아갈 길)

- ① ㉠ ② ㉡ ③ ㉢ ④ ㉣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흠발로 나를 ㉠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9.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7·5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 ③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의태어, 의성어가 나타나고 있다.

10. ㉠~㉣ 중에서 행위의 주체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1. 「나는 나룻배」와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은?

- ① 내 마음은 호수요
- ②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③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④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토끼가 다시 여쭙었다.  
“제가 비록 간을 들이고 낼 수 있으나, 그 또한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뱃속에 넣어 해와 달의 정기를 받아 천지의 기운을 온전히 간직하고, 보름부터 그믐까지는 배에서 꺼내 옥처럼 깨끗한 계곡물에 씻어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깨끗한 바위틈에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둔답니다. 그렇기에 제 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영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별주부를 만난 때는 곧 오월 하순이었습니다. 만일 별주부가 용왕님의 병환이 이렇듯 위급함을 미리 말하였더라면 며칠 기다렸다 간을 가져왔을 것이니, 이는 모두 미련한 별주부의 탓이로소이다.”  
대개 수궁은 육지의 사정에 밝지 못한 까닭에 용왕은 토끼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속으로 헤아리되,  
‘만일 저 말과 같을진대, 배를 갈라 간이 없으면 애써 잡은 토끼만 죽일 따름이요, 다시 누구에게 간을 얻을 수 있으리요? 차라리 살살 달래어 육지에 나가 간을 가져오게

함이 옳도다.’  
하고, 좌우에 명하여 토끼의 결박을 풀고 자리를 마련해 편히 앉도록 하였다. 토끼가 자리에 앉아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거늘, 용왕이 가로되,  
“㉠ 토 선생은 과인의 무례함을 너무 탓하지 마시게.”  
하고, 옥으로 만든 술잔에 귀한 술을 가득 부어 권하며 재삼 위로하니, 토끼가 공손히 받아 마신 후 황송함을 아뢰었다.  
그때, 한 신하가 문득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신이 듣자오니 토끼는 본디 ㉡ 간사한 짐승이라 하옵니다. 바라옵건대 토끼의 간사한 말을 끝이듣지 마시고 바빠간을 내어 옥체를 보중하옵소서.”  
모두 바라보니, 간언<sup>1)</sup>을 잘하는 자가사리였다. 하지만 토끼의 말을 끝이듣게 된 용왕은 기꺼워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토 선생은 산중의 ㉢ 점잖은 선비인데, 어찌 거짓말로 과인을 속이겠는가? 경은 부질없는 말을 내지 말고 물러가 있으라.”  
결국 자가사리가 분함을 못 이기고 하릴없이<sup>2)</sup> 물러났다.  
... (중략) ...  
이때, 별주부는 토끼가 간 곳을 바라보며 길게 탄식하여 가로되,  
“충성이 부족한 탓에 간특한 토끼에게 속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우리 용왕과 신하들을 대하리요?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도다.”  
하고 토끼에게 속은 사연을 적어 바위에 붙이고, 머리를 바위에 부딪쳐 죽었다.  
별주부가 떠난 뒤 소식이 없자 용왕은 거북을 보내어 자세한 사정을 알아 오라 분부하였다. 거북이 즉시 물가에 이르러 살펴보니, 바위 위에 글이 붙어 있고, 곁에 별주부의 시체가 있었다.  
거북이 돌아와 용왕에게 아뢰니, 용왕이 별주부를 불쌍히 여겨 후하게 장사를 지내 주었다. 그 후, 여러 신하들은 산중의 하찮은 토끼가 ㉣ 수궁의 군신을 속인 죄를 묻기 위해서 토끼를 잡아들여야 한다며 용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 작자 미상, 「토끼전」 -  
1) 간언: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  
2) 하릴없이: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쓴 글이다.
- ② 비현실적인 배경이 나타나는 글이다.
- ③ 위인의 삶과 업적에 대해 쓴 글이다.
- ④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 글이다.

13.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별주부는 임무를 완수한다.
- ② 토끼는 위기 대처 능력이 있다.
- ③ 자가사리는 의사 표현이 분명하다.
- ④ 용왕은 육지의 사정에 밝지 못하다.

14. ㉠~㉣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S# 93. 병원 병실 / ㉡ 밤

경숙: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멋대로 굴러 가면서…….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 그럼 난 살 수가 없을 거 같았거든. ㉢ (눈물을 떨구며) 애가 기억하더라고. 옛날에 동물원에서 잃어버렸던 걸……. 기억나지, 당신도? 사실은 말야, 그때 내가 초원을 버렸던 거야. 사람들 틈에서 손을 놓았지.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저 살자고 애를 버렸던 엄마가 이제 또 제가 살려고 애를 그렇게 한평생 못살게 군 거야.

희근: ㉣ 당신 그때 스물일곱이었어.

경숙: 지금은 아니야.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 애가 힘들어도 힘들단 소리를 안 한대. 내가 늘 그랬거든. 초원이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지? 힘들지 않지? 좋지? 좋아하지? 십오 년을 그렇게 애를 다그쳤어. 그래서 이젠 힘들다, 하기 싫단 말을 아예 못 해. 어떡하지? 우리 초원이 불쌍해서……. 어쩔 초원이는 엄마가 자길 또 내버릴까 봐 그렇게 열심히, 힘들단 소리도 못 하고 지금껏 산 거 아닐까, 여보? 어떡하지? 그럼 나 정말 지옥 갈 거야, 그렇지?

- 정윤철·윤진호·송예진, 「말아톤」 -

15.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의 대본이다.
- ② 막과 장으로 구성된다.
- ③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 ④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서이다.

1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숙은 초원을 다그친 적이 없다.
- ② 경숙은 초원을 키울 자신이 없었다.
- ③ 초원은 엄마를 잃어버린 기억이 없다.
- ④ 초원은 힘들다는 소리를 잘하는 편이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장면 번호                      ② ㉡: 시간적 배경
- ③ ㉢: 해설                                ④ ㉣: 대사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어머니는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 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곳에 앉아 있는 내가 답답할까봐, 미리 내게 어디에 숨을지를 말해 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 안에서 중앙이 아니라 구석 쪽이었지만 내가 앉아 있는 계단 앞이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나는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 봐 친구들이 배려를 해 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는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개엿 장수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만 찢렁이며 내 앞을 지나더니 다시 돌아와 내게 개엿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그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지는 몰랐다. 돈 없이 개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착한 마음과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장영희, 「괜찮아」 -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나의 집은 골목 안에서 중심이 되는 곳에 있었다.
- ② 친구들은 놀 때마다 나를 끼워 주는 것을 귀찮아했다.
- ③ 집에서 책만 읽는 나의 모습을 어머니는 좋아하셨다.
- ④ 개엿 장수의 말은 나에게 세상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

19. ㉠ 처럼 느낄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 ② 구체적인 직업이 생겼기 때문에
- ③ 상대방부터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 ④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지구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놀이터 구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 나는 놀이터였던 지구는 몸살을 앓다가 중병에 걸린 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 ㉠ ) 우리가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며 짓이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이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지구가 치유되어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정신을 지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되살림 정신이 필요합니다. ‘되살림’이란 ‘되돌림’과 ‘지나치지 않음’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불필요하게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게는 필요 없게 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물 짜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물 짜기’란 씨줄과 날줄이 빼곡하게 엮인 것처럼 지구 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이 그물 짜기 정신을 살릴 때 우리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나눔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눔’이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일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놓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나눔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정신**을 얼마만큼 실천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지구는 좋게도 나쁘게도 바뀔 수 있습니다.

- 김희진, 「이제는 환경입니다」 -

20.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를 제기한다.
- ②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 ③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개인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21.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접속어는?

- ① 그러나      ② 그리고      ③ 따라서      ④ 왜냐하면

22. 윗글에서 **세 가지 정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눔 정신
- ② 겨루기 정신
- ③ 되살림 정신
- ④ 그물 짜기 정신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읽기는 ‘글쓴이와 읽는 이의 생각과 느낌의 만남’이라고 한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답은 바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고 동시에 읽는 이의 생각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

첫째로,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글 속에 담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글쓴이의 글쓰기 의도나 목적도 파악해야 한다.

둘째로,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읽는 이 스스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읽는 이는 글쓴이가 언급하지 않고 남겨 둔 내용까지 추리하고 상상하며 읽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생각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영환, 「읽기란 무엇인가」 -

23. 위와 같은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동적인 경험에 공감하며 읽는다.
- ② 갈등의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읽는다.
- ③ 시적 표현과 운율의 효과를 살려 읽는다.
- ④ 글의 목적과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글쓴이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② 어떤 경우에도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 ③ 읽기는 글쓴이와 읽는 이의 생각과 느낌의 만남이다.
- ④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25. [A]에 사용된 주된 내용 전개 방법은?

- ① 묘사      ② 서사      ③ 예시      ④ 정의

※ 확인 사항  
답을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